

지리, 풍수, 그리고 풍수지리

윤 홍 기*

1. 문제의 제기
2. 풍수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 왔는가?
3. 이병도의 ‘풍수지리’의 개념
4. 마무리

1. 문제의 제기

지리와 풍수라는 말은 옛날에 중국에서 생성되어 한국에서도 오래도록 사용되어온 용어이다. 지금은 이 두 말이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옛날 지식 체계가 분화되기 전에는 같은 지식 분야를 지칭하는 이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風水’라는 말은 바람과 물을 의미하는 두 글자로 엮여져 있지만, 바람이나 물의 양이나 질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주로 땅의 모양새 즉 지형을 다루어 길지를 찾는 술수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 이에 반해서 地理라는 말 자체는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天文에 상응하는 말로서 땅 위의 산천을 살피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리는 처음

*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 환경학부 교수 / hk.yoon@auckland.ac.nz

부터 글자의 원래 의미대로 땅의 형태 또는 땅의 이치나 원리를 의미하였고, 지형의 특징이나 장소의 특징을 가리키는 말로 줄곧 쓰여 왔다.

이런 두 용어의 어원학적인 의미와 역사적인 사용 관례를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풍수(술)과 지리(지)라는 말은 원래 地理라는 말에서 갈라져 나온 말, 즉 한 뿌리로부터 생성되어 다르게 발전되어온 것이 아닐까 의심하게 된다. 이 地理라는 말은 원래 한자의 뜻으로 풀이하면 땅의 이치라는 말이니 지식체계가 분화되기 전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풍수택지술도 포함하는 지리 즉 “땅의 이치에 관한 지식분야”로서 먼저 생성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 뒤에 점차로 ‘지리’에서 풍수술이 갈라져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어원학적인 추고를 보다 더 깊이 해 볼만 하다.

고대부터 근대까지 오랜 세월 동안 ‘지리’라는 말은 ‘풍수’라는 말과 서로 명칭이 호환되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터를 잡는 술수인 풍수술이라는 지식-술수 체계를 지칭하기도 하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地理誌 또는 地誌라고 부르는 지식 체계를 지칭하는 명칭으로도 사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한백겸(1552-1615)이 저술한 『東國地理志』라는 책은 지리학(역사지리학)책이지만, 1970년대 말에 출판된 東谷이 저술한 『地理學全書』라는 책은 전적으로 전통 풍수술을 다루는 풍수서이다. 이런 식으로 조선왕조에서는 ‘지리’라는 말은 地誌(local gazetteer)를 의미하는 용어로도 쓰여왔지만 풍수를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서양 학문체계가 소개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를 거쳐 지리가 학교 교육의 정규 과목으로 자리잡게 된 뒤에도, 지리라는 말은 地誌와 風水術 둘 다를 지칭하였다. 이는 오랜 세월을 두고 두 명칭이 동의어로 사용되어온 흔적이 이를 증명하며, 지리라는 말은 이제 현대 지리학(geography)을 의미하는 말로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風水(geomancy)를 의미하는 말로 간혹 쓰이곤 한다. 이 짧은 글에서는 지리, 풍수, 그리고 풍수지리라는 명칭의 연관 관계를 잠시 생각해 보려 한다.

2. 풍수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 왔는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중국 명나라 시대의 풍수서인 『人子須知』는 요약된 책이름이고, 그 책의 정식 이름은 『地理人子須知』이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들이 꼭 알아야 할 지리(풍수)” 라고 된다. 풍수라는 이름은 東晉의 郭璞(276~324)이라는 사람이 썼다고 알려진 『葬經』(『葬書』로 주로 알려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하고, 그 근거는 『장경』에 나오는 “經曰 氣乘風則散界水則止 古人聚之使不散行之使有止 故謂之風水”라는 구절이다.

이 말을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면 “경전에 말하길, (생)기가 바람을 타면(만나면) 흩어지고 생기가 물(혈 앞에 있는 물)을 만나면 (흩러 나가지 못하고) 멈추어 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그 것(생기)을 모아서 흩어지지 않게 하고 흩러가는 것을 멈추게 하기 때문에 풍수라고 부른다.” 고 하여서 사람들이 왜 풍수라고 부르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풍수라는 이름을 설명하는 이 『장경』의 구절은 바로 풍수라는 명칭의 생성시기를 산정하는 하한선이 되어 늦어도 4세기에는 이 명칭이 존재했었음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풍수라는 말의 기원을 설명하는 『장경』의 이 구절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 구절의 의미와 『장경』이란 책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지를 따지고 보면 땅속을 흐르고 있는 생기가 모여 있을 수 있는 지형조건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은 풍수라는 말을 설명한다고 하면서 바람과 물 자체를 직접 다루어 설명하지 않고 땅의 생김새와 땅의 원리 즉 지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바로 바람과 물의 양과 질을 조종하는 것이 땅의 생김새, 즉 지형의 조건이기 때문에 지형의 조건을 설명하면 바람과 물 즉 풍수가 설명된다고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장경』의 구절은 풍수라는 말이 지리 즉 땅의 이치를 따지는 과정에서 유래되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풍수술에서는 바람이 자고 물이 앞에 있는 곳이 생기가 모여 있는 吉地라고 하는데, 한 장소가 길지가 되자면 그 장소에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산이 주위

에 둘러져 있고, 앞에 물이 흐르거나 고여 있어서 생기가 흘러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풍수라는 말을 설명하는 『장경』의 이 구절은 사실 지리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풍수라는 말의 바람과 물의 조건은 바로 어떤 장소에 생기가 있고 없고를 좌우하는데 이 조건은 바로 땅의 지형 즉 지리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풍수 고전의 구절은 길지란 바로 기가 흠어지지 않도록 바람을 막아 주는 산이 주위에 있고 물이 앞에 있는 지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풍수 원리란 바로 지리의 원리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풍수의 질은 바로 지리(지형)의 질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풍수란 바로 땅의 이치와 땅의 형상을 다루는 지리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지리라는 말이 먼저 나왔고 풍수라는 말과 지리라는 말은 동의어로 사용하게 되어 서로 혼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지금의 풍수술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옛날부터 중국에서 사용되어 온 풍수술을 지칭하는 말은 사실 地理나 堪輿가 대부분이고 風水라는 말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리’라는 말이 풍수라는 말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있었고, 역사적으로 지리라는 말이 풍수라는 말 보다 더 널리 쓰였으며, 또 지리라는 말이 풍수술을 의미하는 말로도 널리 쓰였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지리라는 말은 자주 天文이라는 말과 함께 붙여서 복합어를 만들어 사용한 경우가 많다. 재래로 풍수지리설에서는 하늘의 별자리와 땅의 산천은 같은 기를 나누고 있고, 서로 상응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름 있는 별자리의 기운이 땅에 응집되어 나타난 것이 이름 있는 산이라는 것이다. 풍수에서 말하는 산 모양들, 즉 五星이니 九星이니 하는 것도 다 하늘의 별자리 기운이 지상에 표현된 것으로 보았다. 풍수설에서 중요한 四神의 이름들, 즉 청룡, 백호, 주작, 현무란 명칭들도 이에 상응하는 별자리의 이름에서 왔다고 한다. 그래서 천문과 지리는 뿌리가 같은 것이고 서로 같은 기운이 하늘에서는 별자리로, 땅에서는 산과 물(강, 호수, 바다)로 나뉘어 표현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옛 사람들이 지리는 천문을 따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별자리의 기운이 땅 위에 나

타난 것이 산이고 강이기 때문에, 천문지리를 복합어 형태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 생각으로는 천문을 본다는 것이 옛날에는 주로 점성술, 즉 별을 보고 점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지상의 지형 즉 산 모양, 강 모양을 보고 길흉을 점치는 것으로 발전되면서 자연히 하늘을 보고 점치는 것을 천문이라고 하고 이에 상응하는 땅의 지형을 보고 점치는 것을 지리라고 하게 된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러한 지리가 추운 바람을 피하고 먹을 물을 구할 수 있는 길지를 찾는 택지술 즉 황토지대의 좋은 동굴 거주지를 찾는 ‘풍수’(바람을 막고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찾는 택지술)라고 불리는 소박한 민속 택지술과 합쳐져 발전된 것이 오늘날의 풍수지리설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지리라는 말이 풍수라는 말보다 더 오래되고 더 널리 사용되어온 것이 아닌가 한다.

기원후 1세기의 班固(32-92)가 저술한 『漢書』에는 지리지에 있는데 이 때 지리라는 말은 地誌 즉 지역지리라는 말로서 광박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葬書』에 나오는 말인 ‘풍수’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풍수술이라는 말보다 적어도 200여 년 이상 일찍 나온 책에 나오는 말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도 ‘지리’라는 말은 ‘풍수’라는 말보다 적어도 200년 이상 일찍 쓰인 말인 셈이다. 우선 중국 전근대에서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풍수술(또는 풍수지리설)을 풍수라는 말보다는 地理 또는 堪輿 라고 주로 불렀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실제로 그 시대에 출판된 세칭 풍수서들의 책이름을 훑어봐도 풍수라는 말이 들어간 책이름은 거의 없고, 주로 지리라는 말이 들어간 책이었고, 그 다음으로 감여라는 말이었다.

그 한 예로 북경대학 지리학과 교수였던, 유 씨씨안(于希賢 Yu Xixian & 于涌 Yu Yong)이 그의 딸과 공저로 쓴 책 『中国古代风水的理论与实践 : 对中国古代风水的再认识』에는 「中國古代的堪輿書目」이라는 중국 전근대의 풍수서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그 목록에는 地理라는 말이 들어간 책 이름이 45권(『인자수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지리인자수지』라고 바로잡아 읽었을 때)으로 가장 많고, 堪輿라는 말이 들어간 책이름이 9권인 반면에, 風水라는 말이 들어간 책이름은 단 한 권뿐이었다. 그런데 이 풍수라는 말이 들어간 책이름의 풍수서도 청나라 말기

1830년대, 즉 근대 19세기 중반에 출판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19세기 이전에 출판된 풍수서 책명에 풍수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한 권도 보이지 않는 셈이다. 그래서 중국에 현존하는 전근대에 출판된 풍수서는 明清時代의 것이 대부분인데 명나라 시대에나 청나라 초기에 출판된 풍수서에는 풍수라는 용어가 들어간 책이름이 유 씨씨안(于希賢) 교수가 발표한 풍수서 목록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현대에 출판되는 중국이나 한국의 풍수서에는 풍수라는 말이 들어간 책이름이 대부분이다. 이것을 봐도 풍수라는 말이 풍수술을 대표하는 말로 일반화된 것은 현대이고 전근대에는 풍수라는 말이 거의 쓰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풍수라는 말이 옛날 東晉 시대에 곽박이 쓴 것으로 알려진 『장경』에 이미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이후 잘 사용되지 않다가 현대에 와서 풍수술을 지칭하는 말로 널리 사용하게 되었는지를 따져 보는 것은 학문적으로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제 地理라는 말은 현대 地理學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고, 서양의 지리학이 소개 된 뒤 지리가 학교 교과과목으로 채택되면서 지리라는 말이 풍수를 지칭하는 말로는 일부 제한된 고전적인 표현을 제외하고는 잘 쓰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지리라는 말이 풍수를 의미하는 말로 한국사회에 남아 있긴 하지만 흔히 쓰이는 것은 아니며, 오직 널리 쓰이고 있는 경우는 두개 이병도에 의하여 시작되었다고 보이는 ‘풍수지리’ 또는 ‘풍수지리설’이라는 중복어의 일부 구성 요소로 남아 있는 정도라고 보인다.

전 근대에는 지리라는 말이 지리지(regional geography) 또는 지지(local gazetteers)의 의미와 풍수(geomancy)의 의미를 둘 다 가지는 말이었던 것이 확실하다. 중국 역사서의 지리지나 한국사서 『삼국사기』나 『고려사』의 지리지 또는 『조선왕조실록』의 지리지—를 보더라도 지리는 지지 또는 지리지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고, 동시에 풍수를 지칭하는 말로도 널리 사용되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지리라는 말은 영어의 interest라는 한 낱말이 ‘이자(利子)’라는 말과 ‘흥미(興味)’라는 생판 다른 의미를 지칭하는 同音異義語(homonym, 동철이의어라고도 번역

함)인 것과 같이 ‘지리’라는 낱말은 지지와 풍수를 다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어 문맥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풍수술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리지를 의미하기도 하는 말이었다. 지리라는 말이 원래는 풍수술을 의미하는 말로 시작되었다가 地誌라는 말을 의미하게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중국 고대에는 지리라는 말이 땅의 이치를 의미하니까 처음에는 지리학 또는 地誌學과 풍수술의 개념 구별이 안 된 하나의 지식체계의 이름으로 쓰여 오다가 나중에 풍수술이 지리학으로부터 분화되어 각자 별개의 지식체계로 발전된 뒤에도 지리라는 말은 이 두 체계를 다 지칭하는 동음이의어로 사용되어 왔는데 근래에 와서야 확실히 구별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지리라는 말과 풍수라는 말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낱말이고 둘 다 풍수술을 지칭하는 말로 동의어 비슷하게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혼용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풍수라는 말과 지리라는 말은 서로 호환되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역사학자 斗溪 李丙燾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리와 풍수라는 두 낱말의 사용이 혼란을 초래하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양에서 들어 온 geography 라는 말을 ‘지리학’이라고 번역한 뒤부터는 지리라는 말은 지리학을 의미하는 말로 자리잡게 되었고 풍수를 의미하는 말은 따로 풍수라는 말로 정립하게 되지 않았나 추리하여 볼 수 있다. 특히 개화기 이후 지리 교과목이 각급 학교에서 정규 교과과정에 정착하면서부터는 더욱 더 지리는 geography(근대 지리학)으로 자리잡았고 풍수를 의미하는 말로부터는 거리가 멀어졌다고 생각된다.

3. 이병도의 ‘풍수지리’의 개념

최근래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풍수술은 어떤 때는 ‘지리’라는 이름으로 또 어떤 때는 ‘풍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어, 사람에 따라서는 좀 혼돈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럼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의 풍수(중국으로부터 수입된 풍수)는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까?

역사적으로 봐서 중국에서도 풍수라는 말은 지리나 감여라는 말보다 훨씬 적게 쓰인 것 같으니 우리가 그러한 풍수를 꼭 풍수라고 불려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風水地理라는 말이 風水라는 말보다 더 적당한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도 전 근대 사회에서는 풍수술을 지칭하는 말로 풍수라는 낱말보다는 감여나 지리라는 낱말을 보다 더 널리 써 온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것은 18세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널리 읽혀진 李重煥의 저서인 『擇里志』에 나오는 풍수술을 지칭하는 말이 대체로 地理나 堪輿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관이나 풍수사에 해당하는 말도 주로 감여가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현대 한국에서는 두계 이병도가 그의 저서 『高麗時代의 研究』에서 풍수 용어의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재래 풍수술을 지칭하는 두 낱말, 풍수와 지리를 합쳐서 풍수지리라는 복합어 낱말을 만들어 그 책에서 사용한다고 아래와 같이 선언하였다.

風水地理는 單히 ‘風水’ 혹은 ‘地理’란 것이 元稱으로 또 別히 ‘堪輿’라고도 일컫는다. 그러나 명칭의 紛糾과 誤解를 避키 爲하여 여기에는 特히 ‘風水地理’란 重複語를 쓰기로 하였다. (이병도, 위의 책, 1954, p.362)

이와 같이 이병도가 풍수지리라는 중복어를 만든 이유로 분류와 오해를 들고 있는데 이 분류와 오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어떤 경우에는 ‘지리’라는 말이 또 어떤 경우에는 ‘풍수’라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풍수술’을 지칭하는 말로 이병도가 활동하던 당시에 쓰여서 혼란스러웠고 오해의 소지도 되어왔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병도는 이 두 말을 합쳐서 ‘風水地理’라는 복합어(중복어)를 만들어 풍수 또는 지리라는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혼돈스러움과 분류를 피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병도가 말한 분류와 오해라는 표현에는 당시 ‘풍수’라는 말과 ‘지리’라는 말이 둘 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풍수술을 지칭하는 말로 널리 서로 돌려가며 쓰이고(interchangeable) 있었던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이병도가 ‘풍수지리’라는 복합어를 만들어 재래 풍수술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기 시작한 뒤 ‘풍수지리’라는 용어는 학자들과 일반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다. ‘풍수지리’라는 말은 한국으로 전파된 풍수술을 한국의 역사문화 풍토에서 해석하여 사용하게 된 풍수술의 명칭으로서 이제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 말이다. 이렇게 볼 때 ‘풍수지리’라는 용어는 한국적인 풍수 용어로서 중국에서 사용되는 풍수와 구별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사용되는 풍수를 지칭하는 말로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마무리

풍수와 지리는 옛날부터 동의어 비슷하게 사용되어 왔고 지금도 풍수는 지리학과 가장 관계가 깊은 택지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말이 지금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옛날 지식 체계가 분화되기 전에는 같은 지식 분야를 지칭하는 이름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지리라는 이름(분야)으로부터 풍수라는 이름(분야)이 갈라져 나온 것 같이 보인다. 地理라는 말은 중국에서 옛날부터 지리지와 풍수술을 둘 다 지칭하는 동음이의어로서 사용되어 오다가 최근래에 와서 한국에서는 지리는 지리학만을 주로 의미하게 되었고 풍수를 가리키는 말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오직 풍수라는 말이 풍수술을 지칭하는 말로 고정되었고, 요즈음은 풍수지리라는 말이 풍수술을 지칭하는 말로 한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기] 이 글은 The University of Auckland로부터 연구년 휴가를 받아서 2019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에 방문학자로 있을 때 마무리하였다. 이 글의 토대는 2017년 12월 공주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일부와 2017년 5월 시드니에서 키노트 스피치로 발표한 것 중에서 일부를

재정리하고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글의 어색한 한글 표현을 잘 다듬어 준 경북대학교 사학과 이영호 교수께 감사한다. Hong-key Yoon (2017), “A Reflection on the Academic Scope of Research into Chinese Geomancy.” In M.Y. Mak & M.J. Paton (Eds.), Proceedings of the Academic Journal of Feng Shui - 1st Symposium - Oceania.

([http://ajofengshui.co.nf/wp-content/uploads/2017/05/Yoon-Hong-Key-2017-Reflection-Academic-Scope-of-Geomancy P.pdf](http://ajofengshui.co.nf/wp-content/uploads/2017/05/Yoon-Hong-Key-2017-Reflection-Academic-Scope-of-Geomancy-P.pdf))

참고문헌

- Guo, Pu [郭璞], Zangjing [葬經; The Classic of Burial]. Neipian [內篇; The Inner Volume]. In Chongwen Shuju Heikeshu [崇文書局 黑客書; Chongwen Publishing House Heikeshu], n. p. Wuhan: Hubei Chongwen Shuju, 1875.
- Xu, Shanji [徐善繼] and Xu Shanshu [徐善術], Dili Renzi Xuezhi [地理 人子須知; Geomantic Facts That All Humanity Must Know]. Translated by Kim Tonggyu [金東奎]. Inja Suji: Chahyo P'ungsu Chiri Simhak. 2 vols. Myŏngmun Yŏkhak Ch'ongsŏ [易學 叢書; Outstanding Texts for the Study of the Yijing Ser.] Vols. 67-68. Seoul: Myungmundang, 2008.
- Yu Xixian 于希贤 & 于涌 Yong Yu, 中国古代风水的理论与实践：对中国古代风水的再认识 Zhongguo gudai fengshui de lilun yu shijian : dui Zhongguo gudai fengshui de zai renshi (Beijing Shi : Guang ming ri bao chu ban she 2005).
- 韓百謙, 『東國地理志』,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규장각서고. 청구기호 古 4790-46.
- 東谷, 『地理學全書』, 易學叢書, 서울: 易書普及社, 1979.
- 李丙燾, 『高麗時代의 研究』, 한국문화총서 제4집(서울: 을유문화사, [1948]1954).

